

# 당진 석문산단, 선광 양곡터미널 안전할 수 있는가?

지난해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붉은불개미 발견  
지역주민 불안감 호소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양곡 사이로를 운영하는 선광이 ‘당진양곡자동화터미널조성사업’을 소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으로 호소하고 있다.

석문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선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이로사업, 컨테이너터미널, 물류사업 등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당진 석문국가산업지에 들어설 양곡자동화터미널은 전 세계 곡물을 취급하면서 유입 될 수 있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인 붉은불개미 등의 해충이다.

이번 당진시 석문산단에 동지를 틀고자 하는 선광의 경우 붉은불개미와 무관치 않다는데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8일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10체, 유충 400여마



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7년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국내에선 비상이 걸린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23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달 5월 21일 인천항 야적장에서 맹독성 해충인 붉은불개미 2000여 마리가 발견돼 검역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서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붉은불개미는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목초지, 과수원 등에 피해를 일으키고 번

식력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박멸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붉은불개미의 영타이에 있는 독침에 쏘이게 되면 솔레놉신(Solenopsin) 성분 때문에 화상을 입은 듯한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 상처 부위가 가렵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쏘인 부분이 붓기 시작하고 몸에 발진이 나타나기도 하며, 0.6%에서 6%의 사람들에게는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손이 떨리거나 동공이 좁아지는 증상이나 현기증, 심장박동 빨라짐,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장애 등 과민성 쇼크 증상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은 물론 당진과 인접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붉은불개미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 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A는 “아무리 감시와 방역을 철저

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외부 유입이 잦으면 안전가는 방어가 뚫려서 국내정착 개체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100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도 한 번만 실패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이번 당진 석문에 선광이 추진하는 당진양곡자동화터미널조성사업의 인허가 담당 관계 당국은 해충 유입 등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 없이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업은 해수부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대한 승인과 당진시 항만수산과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물류창고 부분은 아직 교통과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TN취재진은 선광 측에 붉은불개미 관련 질의 했으나 답변할 직원의 부재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그런 문제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선광 측 관계자와 협의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성진 기자



## 아산시, ‘제18회 충남농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박경귀 시장 “충추한 장애인 정책 통해 무장애 도시 지속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3일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농아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18회 충남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기념해 (사)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회장 김성완), (사)한국농아인협회 아산시지회(회장 전복진) 주최·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단체·시설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노력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축사, 장애인식개선 공연이 이어졌으며, 2부는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서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박경귀 시장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 아산에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며, “아산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온천힐링센터와 만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세심하고 충추한 장애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5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생활 안정, 돌봄,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조성환 기자

## 최현석·오대환·이선빈·김산호 충남 알린다

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신규 앰버서더 위촉식 개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해 셰프 최현석 씨와 배우 오대환·김산호·이선빈 씨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는 지난 4일 도청 외부전결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현석, 오대환, 이선빈, 김산호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방

문의 해 신규 앰버서더(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큰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앰버서더 4명은, 협약에 따라 충남 방문의 해 중료시까지 국내외에 충남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 내용은 각종 포스터·영상 등 홍보물과 지역축제, 선포식, 관광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한다.  
김태흠 지사는 “도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참여는 물론,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앰버서더로서 각자 분야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다”며, “앞으로 앰버서더들과 함께 세계적인 한류 유행 추세에 맞춰 충남 관광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로서 이미지 제고 및 2026년 방문객 5000만명 달성 등 국내 관광지 전국 3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7도호 기자

##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대성공과 함께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이룬다

더본코리아와 손 맞잡아 올해만 200만명 다녀가... 셀트리온과 투자협약 등 눈길

민선8기 출범 2주년 앞둔 예산군, 무엇이 달라졌나?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앞둔 예산군은 예산상설시장 대성공과 국내 우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더본코리아와 손을 맞잡고 지난해 1월 예산상설시장 활성화와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개장 이후 1년간 총 370만명이 다녀가는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올해에도 지난 1월 개축기 설치 이후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 중임에도 159일만인 지난 6월 2일 20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으며, 군은 예산상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국 지자체 브랜드 평판 1위는 물론 타 지자체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해 벤치



▲예산상설시장 모습  
마킹을 위한 방문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군은 예산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삼교 곱창 특화거리가 조성된 삼교시장을 비롯해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우수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등 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총 22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예산 조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확충과 인구증가 등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예산상설시장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는 물론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용관 기자

## 옥천삼양 행복주택, 세대별 입주 진행

13일부터 277까지...45일간

옥천군은 옥천군(군수 황규철)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옥천을 삼양리 일원에 추진한 ‘옥천삼양 행복주택’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사업비 308억원(LH건설비 및 군비 포함)이 투입됐다.  
지난 2018년 12월 옥천군과 LH가 공동임무협약을 맺고, 2021년 12월 착공 후 지난달 30일 준공했으며, 오는 1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45일간 입주 기간을 지정해 세대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7,095㎡의 부지에 청년형(21㎡) 78세대, 고품자 및 취약계층형(26㎡) 40세대, 신혼부부형(36㎡, 44㎡) 82세대 총 200세대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면적별로 월 8~30만원, 보증금은 대상



별로 340~6000만원 정도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행복주택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낮춰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며,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기반을 잡아 내 집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국 기자

## 청주시, 3년 연속 충북 지방세 징수 평가 ‘최우수상’ 선정

이월체납액 징수율 51.3% 달성

청주시는 충청북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노력 등 5개 평가 지표, 1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 정리보류 후 징수실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시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가

택수색을 실시하는 등의 고강도 징수정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이월체납액 징수율 51.3%를 달성했다.  
이는 도내 평균 이월체납액 징수율 33.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 청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청주시는 2024년에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 동안 체납안내문 발송, 재산 압류, 직권별 체납자 징수책임제, 실태조사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백철우 기자